

생존의 기억·책임 ‘상기’...오월 기억하다

CULTURE

2025년 5월 9일 금요일

재독화가 정영창, 광주·나주서 잇따라 전시

예술이빨그라운드·정미소 작은미술관에서 31일까지

5·18과 쌀의 의미 ‘반추’...회화·영상·설치 등 선배

1983년 독일로 유학을 떠난 뒤 올해 독일 거주 42년째를 맞은 전남 목포 출생 재독화가 정영창씨가 광주와 나주에서 잇따라 전시를 열고 있다. 광주에서는 5·18민중항쟁 45주년을 추념하기 위한 취지로, 나주에서는 곡창지대인 나주에서 쌀을 통해 우리 선조들의 피비린내 나는 삶의 질곡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다.

광주 전시는 ‘오월민중항쟁 마흔다섯해 특별 기억전’의 하나이자 죽음을 기억하고 생존의 책임을 사유하는 예술장으로, 동구 구성로 204번길 소재 예술이빨그라운드 전시장에서 지난 2일 개막해 오는 31일까지 ‘묵숨’이라는 타이틀로 열린다. 출품작은 대형 9개 작품 등 회화 25여점과 영상 1점이며, 전시장 내부에는 현재 복원사업중인 도청 일부의 오브제를 이용한 설치작품이 선보인다.

타이틀인 ‘묵숨’은 죽은 자들의 숨겨져 살아남은 자가 함께 산다는 의미로, 작가의 예술세계 전반을 관통하는 윤리적 감각을 담고 있다. 작가는 “죽은 자의 뉘끼 숨을 쉬며, 나는 이 숨으로 그린다”고 말하며, 단순한 감상의 대상이 아닌 기억과 책임의 감각을 관객에게 요구한다.

이번 전시는 광주에서 처음 공개되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가운데, 흑백의 절제된 색감과 깊은 어둠, 먹의 번짐과 얼룩을 통해 죽음 이후의 침묵과 응시를 직면하게 한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잊었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관객과 스스로가 기억의 증인이 돼 작품과 호흡하는 방식으로 기획됐다.

전시에서는 2025년 신작이 대거 공개된다. 대작인 ‘꽃 지고 피다’ (120×190cm)를 비롯해 ‘검은비’ (80×120cm) 연작 6점, ‘쌀’ 연작 4점 등 신작 회화 시리즈가 처음 출품돼 관객들에게 소개된다.

또 2017년에 제작된 ‘도청 복도’와 ‘도청 방수실’ 역시 이번 전시에서 공개되는 작품들로, 옛 전남도청 공간에 대한 작가의 오마주 헌정으로 이해하면 된다. 특히 작가는 도청 복원사업중인 현장에서 가져온 흙 등을 이용한 설치작업도 펼칠 예정이다.

작가는 2025년 완공 예정을 앞두고 한창 공사 중인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을 앞두고, 그 공간을 향한 기억과 존엄의 실제적 현상을 전시장에서 설치하면서 ‘과거를 현재를 구할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중 ‘산이 된 사람’은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한 구절을 시각적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그림은 1980년 5월 전남도청의 마지막 순간을 상징하는 형상으로, 이미 생기를 잃은 육체가 화면 중앙에 놓여 있다. 먹과 아크릴로 구성된 이 작품은 인체를 넘어선 형이상학적 존재로 확장되며, 죽은 자가 산이 돼 민중의 삶을 떠받치는 시각적 은유를 제시하고 있다.

작가는 그동안 전쟁과 폭력, 죽음과 생존의 윤리라는 보편적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며,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지에서 다수의 전시를 이어왔다. 매년 오월을 기억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하고 있다.

이당금 대표는 “이번 전시는 예술적 형식으로 5



월을 기억하려는 자발적 헌정이다. 오월 정신의 현대적 계승”이라며 “정영창 작가의 작업은 광주를 넘어 오늘의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일 배우 이당금씨와 이태영씨가 오프닝 무대로 퍼포먼스 ‘검은 숨’을 선보인데 이어 24일 오후 3시에는 작가와의 대화 시간이 마련된다. 휴관일은 매주 수요일이다.

정 작가의 ‘검은비’ (black memorial, 가로 8.5×세로 2.5m)는 2018년 오월민중항쟁 38주년 행사의 하나로 상무관 공간이 일반인들에게 특별 개방을 앞두고 설치됐으나 도청복원 2차 사업이 진행되면서 5·18기록관으로 이전돼 오월광장을 찾는 추모객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지속되고 있다.

나주정미소 작은미술관에서는 ‘쌀에 대한 사유’



‘도청방수실’ (예술이빨그라운드)

라는 주제로 특별초대전이 5월 9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쌀’전을 하게 된 이면에는 정미소라는 자체가 쌀과 관련이 있고, 쌀과 관련된 역사가 여럿 있다는 점을 상기하기 위해서다. 작가는 쌀이 동학 농민혁명과 학생독립운동, 그리고 5월로 이어지니까 작은미술관에서 어떻게든 전시로 연결해보자겠다고 생각한 것이 전시의 첫 출발점이었다. 예술이빨그라운드 전시처럼 나주학생독립운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던 건축물을 대상으로 복원사업 중인데 여기서 나온 버려질뻔한 목재 재들을 전시장 안으로 들여와 오브제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많았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나주정미소 작은미술관에서 작품을 설명하고 있는 정영창 작가.

우리 아이 ‘생애 첫 극장’ 체험 어때요

문화체육관광부 영유아 공연 국립극장과 공동 제작 신작 9~11일 어린이극장 등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은 9일부터 11일까지 어린이극장과 야외 광장에서 ACC 영유아 공연 2편을 선보인다.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의 ‘더 어린 관객을 위한 극장’은 3세 이하 영유아를 위한 창작 공연과 워크숍으로 아이에게 첫 극장 경험을 선사하고 생애주기별 공연 향유의 범위를 넓혀주는 사업이다.

국내 최초의 국립 어린이극장을 갖춘 ACC는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아 국립극단과 함께 신작 2편을 공동 제작해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감각형 무용 퍼포먼스 ‘봄·여름·가을·겨울 숨숨숨’과 인신부, 영유아가 함께 교감하는 연극 ‘흔들흔들 우주’로 창작팀 은뫼과 극단 마실이 각각 2년간의 연구 과정을 거쳐 완성했다. 또 예비 엄마와 산부인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료진이 자문에 참여했다.

먼저 어린이문화원 앞 광장에서 진행되는 ‘봄·여름·가을·겨울 숨숨숨’은 창작팀 은뫼의 진한태 안무가가 자연의 소리와 리듬, 동식물의 움직임,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인간의 감각을 무용 퍼포먼스와 축제 형식으로 창작한 공연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9~11일 어린이극장과 야외 광장에서 ACC 영유아 공연 2편을 선보인다. 사진은 국립극단의 ‘2025 더 어린 관객을 위한 연극-은뫼’ 공연 모습.

공연명 중 ‘숨(心)’은 마음의 숨결을 뜻하고, ‘숨’은 생명의 숨소리를, ‘숨’은 성장의 몸짓을 의미한다. 공연을 통해 ‘숨을 쉰다’는 본질적인 감각을 아이에게 전달하고, 이는 곧 자연 속의 생명과 성장의 몸짓으로 이어짐을 표현한다. 공연이 펼쳐지는 야외 공간은 나무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자연 속 공연장으로 탈바꿈하는 것도 특징이다.

실내 어린이극장에서 진행되는 창작팀 극단 마실의 ‘흔들흔들 우주’는 손해정 연출가가 직접 경험한 임신과 출산의 순간을 바탕으로 탄생했다. 공연은 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의 과정을 예술로 해

석하고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드넓은 우주에서 이루는 두 사람만의 여정’을 주제로 무대 위에서 임신부와 영유아 관객이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함께 관객 경험을 나눔으로써 새로운 탄생이라는 한 편의 세계를 그려낸다.

‘봄·여름·가을·겨울 숨숨숨’은 18~36개월 이하의 영유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며, ‘흔들흔들 우주’는 임신부와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관람이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ACC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다경 기자 alsqsl94@gwangnam.co.kr

‘반짝이는 청춘’ 연극 무대 참여해볼까

극단 토박이 ‘연극도전기’ 프로그램 선착순 모집

극단 토박이가 광주지역 청년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연극도전기-그대는 반짝이는 청춘’에 함께할 참여자를 모집한다.

1회기는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10회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동구 민들레소극장에서 진행된다. 2·3회기는 8~10월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어보도록 스스로를 표현하고

사람들과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며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감정나눔 연극놀이, 삶을 위로하는 각양각색 즉흥연극, 공연관람과 책 나누기 등으로 이뤄진다.

광주지역 청년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0명 내외를 선착순 모집한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극단 토박이는 광주에서 1983년 창단한 창작극 중심의 전문공연단체다. 대표작으로 오월극 ‘금희의 오월’, ‘모란꽃’, ‘청실홍실’, 가족극 ‘꽃이여 바람이여’, 청소년극 ‘죽기살기’, ‘글러브와 스틱 그리고 찢어버거’ 등이 있으며, ‘어린이 연극학교’,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매우터 ‘아우라지’ 등을 운영하며 건강한 연극문화 창조에 기여하고 있다.

극단 토박이 관계자는 “문화예술교육은 사람의 마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며, 미래를 꿈꾸게 한다. 광주 지역 청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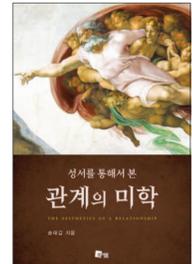
문의 062-222-6280.

김다경 기자 alsqsl94@gwangnam.co.kr

자아성찰과 본질적 삶...적절한 관계 설정 필요

송태갑 힐링 인문학서 ‘성서를 통해서 본 관계의 미학’ 펴내

광주전남연구원에서 경관과 정원, 마을 가구기 등의 분야에서 남도 이곳저곳을 두루 다니며 현장 위주의 연구를 수행했던 송태갑씨가 최근 자아성찰과 삶의 본질적 의미를 찾아가는 힐링 인문학서인 ‘성서를 통해서 본 관계의 미학’ (도서출판 미세움 7월)을 펴냈다.



최근 27년간의 연구원 생활을 마감하고 ‘정원엔vironment연구소’ (Garden & Landscape Institute)를 설립해 기존의 연구를 심화시키면서 인문학으로의 연구 지평을 넓혀온 저자는 관계의 중요성과 세상의 불안정성에 주목하고 있다.

먼저 관계의 중요성과 관련해 우리가 인식하던 많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데 공감한다. 이를테면 최소한 사람이나 생명에 있는 자연, 그리고 사유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사람들이 필연적 관계 속에서 존재의 가치를 정립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모든 관계에는 반드시 ‘사이’, 혹은 ‘틈’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만큼 이들이 지속적으로 아름답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때와 장소에 따라 적절한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철학이나 문학, 예술이 있지만 세상의 불안정성과 관련해 과학적 사고가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수치나 실험 결과만

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다고 전제한다.

‘성서를 통해서 본 관계의 미학’은 관계의 미학과 창조적 핵심, 하나님과 사람, 일과 안식, 철학과 성경 등 22개 산문인 수록됐다.

저자는 “성서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어떻게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지 성찰해야 한다”면서 “진정한 아름다움, 선함, 의로움 등에 대해 철학, 과학, 미학, 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과의 소통을 통해 모든 분야가 화해하고 융합을 시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저자인 송태갑씨는 경희대에서 조경학전공으로 이학박사를 취득했고 일본 치바대학교 박사과정에서 도시디자인 및 정원 (Garden)을 연구했으며 미국 델라웨어 주립대학 방문연구원 과정에서 경관 관련 연구를 수행했다. 저서로는 ‘영혼의 정원’, ‘거기에 정원이 있었네’, ‘지혜와 위로를 주는 풍경의 발견’, ‘정원을 거닐며 삶을 배우며’, ‘꽃밭에 깃든 사랑’, ‘영혼의 품격’, ‘누군가 정원에서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행복하냐고? 아니, 감사해!’ 등이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제7회 조태일문학상’ 공모

내달 30일까지 접수...9월 시상

곡성 출신으로 한국시단의 대표적인 민족·민중 시인으로 꼽히는 조태일 시인의 삶과 시 세계를 기리는 ‘제7회 조태일문학상’ 공모가 시작했다.

(사)죽형조태일시인기념사업회와 곡성군이 주최하고, 한국작가회의, 광주전남작가회의, 창비, 문학들이 후원하는 ‘제7회 조태일문학상’ 접수 기

간은 지난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이며, 최근 2년 이내 (2023년 6월 1일 이후)에 발간한 시집을 시인 본인이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추천위원의 추천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상금은 2000만원이며, 시상식은 오는 9월 곡성 조태일시문학기념관에서 열리는 조태일 시인 26주기 문학 축전에서 진행된다. 수상 시인은 시 전문지인 ‘시인’에 수상 작품과 작품론, 수상자 대담 등을 게재하며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